

지역 소식통

고창군, '송용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고창군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대상지인 신립면 '송용제'의 본격적인 정비 공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송용제는 지난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선정돼 올 9월 공사를 착공했지만,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군은 송용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관련 마을설명회를 20일 오후에 열었다. 설명회에 선 마을 주민들에게 공사개요 등 공사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지구인 아산면 가장제, 상하면 장암제 2개 저수지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40억여 원을 투입해 현재 설계마무리 단계에 있다. 11월중 공사 발주와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군청 나철주 건설도시과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기반시설 구축으로 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위도 호박축제 28일부터 3일간 열려

부안군 위도면에서 특별하고 이색적인 마을축제가 열린다.

부안군은 위도면 주민들이 손수 심어 키운 호박과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제1회 위도 호박축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위도면 치도리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축제는 첫날 개막식으로 위도해수욕장 야외무대에서 '동양의 마리아 칼라스'라고 극찬을 받고 있는 소프라노 김영미씨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청렴한 정읍 만들기' 실현

신뢰받는 행정 구현 위해... '제1기 청렴 시민 감사관' 운영회의 열어

정읍시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26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기 청렴 시민 감사관 운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학수 시장과 송양조 위원장을 비롯해 시민 감사관 위원들과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시는 공무원과 시민들의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청렴한 정읍시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청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학수 시장과 청렴 시민 감사관을 청렴한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서에 서명한 후 청렴 의지 메시지를



를 담은 안내판을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청렴 시민 감사관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렴한 건의 사항에 대해 정읍시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향후 활동 방향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의견 등을 청취했다.

또 토의를 통해 감사관들은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정읍시에 제보하고,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등 시정이 미치지 못하는 시각지대를 중심으로 시정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감사관 활동이 저조했지만, 올해는 더욱 활발한 활동과 고견을 통해 공직 사회의 부조리·비위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렴 시민 감사관 제도는 공직 부조리와 부패를 방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행정을 실현하는 제도다. /정읍=김대환 기자

▶ 바로잡습니다

본보 8월 31일자 '부안 부단체장' 보도 관련

본보는 지난 8월 31일자 8면 <부안 부단체장, 보건소장 직대 직무 관련 월권행위로 '과장' > 제하의 기사에서 부안군 부단체장이 보건소 소장직무대리에 대해 업무관련 권한의 도를 넘어 근무평정과 직원 근무지 배치에 관여했으며, 폭언과 업무상 갑질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부안군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안군보건소 근무평정자는 보건소장이며 확인자는 부군수가 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에 의거 근무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해 평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부안군 부군수가 근무평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위 기사에 대해 김중택 전 부안군 부군수는 보건소 인사 및 근무평정과 관련해 갑질을 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별나라 여행 축제 열린다!

전북기상과학관, 29일 다채로운 천문과학 체험 마련

달과 별 우주를 꿈꾸는 '제22회 별나라 여행 축제'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정읍시 상평동에 소재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정읍천문연구회와 국립전북기상과학관, 혜성(정주고등학교 동아리)이 주최하고 정읍시와 전북정읍교육지원청, 전주기상지청, 정주고등학교, 전북과학대학교(스마트정보과)가 후원한다.

이번 축제는 가을 밤하늘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자리 관측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천문과학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한국인 최초로 '소행성 2888'을 발견한 우리나라 최고의 아마추어 천문학 권위자 이태형 박사의 천문 특강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천문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천체관측 사진 촬영 대회는 천체망원경을 비롯한 푸집한 상품과 경품도 준비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천문연구회 이정열 회장은 "요즘 날이 심해지는 대기오염으로 도시에서는 점차 별을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전북기상과학관을 방문해 다양한 천체를 직접 관측하는 기회를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참여 정책 제안 페스티벌 '우수 제안' 선정

정읍시, '회전교차로 LED유도등 설치' 등 14건 시상

정읍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추진한 시민참여 정책 제안 페스티벌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정읍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을 공모했다.

공모는 특별주제인 정읍역~정읍천 연계 핫플레이스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일반주제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주변 개선사항을 할 정책으로 나누어 시행했으며 총 188건의 다채로운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경제성, 실용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자 14건(시민 7건, 공무원 7건)을 선정했다.



특별주제 수상작은 △정읍역~정읍천 인도에 바닥화로 정읍을 일리자(임경빈 시민) △천변 경사로형 진입로 및 하천 연결다리 개설(이소연 공무원)이 선정됐다.

또 일반주제 수상작은 시민 부문에서 △회전교차로 LED 유도등 설치(박

상하) △이안숲 산책로 CCTV 설치(김혜희) △정읍시 공공차량 현황과 이용에 관한 공개시스템 구축(윤의영) △천변 자전거도로 정비(박광석) △정읍시 정체성 재발견 축제거리 조성(김후남) △천변 주변 환경 조성(김현준)이 선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2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이현)은 동학농민혁명 제128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동학의 글로벌리제이션 : 인물로 본 부안 동학농민혁명과 동학정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동학학회가 주관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부안에서는 혁명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백산

대회가 열렸고, 혁명 중에는 관민상화의 정신으로 부안 관내 질서를 유지하며 소통과 화합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해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채길순 명지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총 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조국훈(경기대), 조규태(한성대), 박대길(전북대), 맹문재(인양대), 강민숙(시인) 등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에는 김영철(동

국대), 김영진(경희대), 성강현(동의대), 김남희(카톨릭대), 우수영(경북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학술대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부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 인물 분석을 중심으로 부안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상을 재조명하고, 부안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부안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파악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부안 동학농민혁명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동학정신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제주시, 농촌지도자회 우호교류 결연 맺어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지난 25일 고창군-제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 자매결연 행사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고창군 농촌지도자 최종영 회장의 임원 40명, 제주시 농촌지도자 김창영 회장 외 임원 40명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과 제주시 지도자 임원소개, 농특산물 교환식, 자매결연 협약식, 화합의 밤 행사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 △산전산업 기술교류 및 우량종자 자율교류 △조작화합 및 영농정보 공유 교류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을 다짐하였다.

심덕섭 군수는 환영사에서 "제주시

농촌지도자 임원들의 고창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자매결연식을 통해 서로의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특산물을 서로 홍보해 주고 팔아주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또한 2023년은 고창방문의 해로 유네스코 5관왕의 신기록을 보유한 고창군을 제주 도민들의 많은 홍보와 방문도 부탁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